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電算化에 즈음하여

成 宅 慶
國會圖書館參考書誌課長

1. 序

國會圖書館에서 繼續 刊行하여 오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드디어 1978年 7月 1일부터 電算化를 위한 시스템開發을 着手하게 되었다.

1963年 韓國圖書館協會의 索引分科委員會에서 「學術雜誌索引」 1960~1962年分 2冊의 編輯·發行에서 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거의 20年間) 15餘年동안 이 索引의 編輯業務에 關係하여 온 筆者로서는 이제 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電算化를 着手함에 있어서 지난날의 여러가지 일들과 앞으로의 期待와 發展에 대한 若干의 흥분 등의 感懷가 엇갈린다.

그동안 여러 圖書館人 혹은 外部學者 그리고 圖書館學分野의 學位論文 등에서 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대해서 稱讚과 批評, 또 是正할 點에 대해서도 指摘을 많이 하여 주셨고, 全國圖書館人의 모임인 圖書館大會 席上에서 建議事項으로 까지 採擇되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編輯發行에 대한 要望事項이 나왔을 때는 이 索引誌의 編輯을 擔當한 사람으로서 이를 即刻 解決치 못하여 몹시 안타까운 心情이었다.

그러나 一個人이 自意的으로 刊行하는 것이 아니고, 큰 組織의 一員으로서 國家豫算에 의해 刊行하는 것인 만큼 編輯에 있어서는 윗사람의 裁可를 받아야 했고, 또 發刊에 있어서는 國家豫算에 拘礙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圖書館學을 專攻하는 사람들의 研究對象이 되고 全體圖書館人들의 모임에서 論議對象이 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지닌 그 價値性이 매우 重要하기 때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現代圖書館이나 研究機關에서는 一般圖書보다도 定期刊行物의 位置가 더욱 더 그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는 點과 文獻情報量의 暴發의인 增加가 이와같은 二次資料의 價値性을 더욱 더 높여 가고 있음을 우

리 司書들은 文獻을 통해서나 經驗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이와같이 重要的 國家書誌中の 하나인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利用에 不便함이 없는 編輯體裁와 迅速한 刊行은 여러 圖書館人들의 要請이 없더라도 編輯擔當者가 꼭 解決해야 할 義務이고 使命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苦心하던차 이번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제일 먼저 電算處理하게됨에 따라 앞서 記述한 바 대로 약간의 흥분을 느낄은 率直한 告白이다.

이제 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電算化를 契機로하여 그동안 여러가지 論議되었던 編輯上의 問題나 刊行에 關係된 要望事項들을 모두 參酌하여 斯界 專門家들을 諮問委員으로 모시고 充分한 檢討를 한 다음 그야말로 國家的인 書誌로서 模範이 되고 標準이 되는 索引을 만들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여러 圖書館人들과 함께 기뻐해 마지 않는 바이다.

2. 「정기간행물기사색인」 電算化計劃書

國會圖書館에서는 今年에 電算化가 가장 時急한 ①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시스템開發과 ②國會圖書館業務의 綜合電算化方向 및 年次推進計劃樹立 등 두가지 일을 韓國科學技術情센터에 委託사업으로 依頼하여 1978年 7月 1일부터 着手하게 되었다.

그래서 今年中에는 國會圖書館業務의 電算化를 위한 Master plan과 함께 가장 時急했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시스템開發이 그 첫年度의 事業이고 來年부터는 Master plan에 의해서 順次的으로 國會圖書館에서 刊行하고 있는 다른 二次資料들도 계속 電算化 해갈 方針이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電算化 事業에 限定해서 그 事業內容, 推進 및 效果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事業內容: ①索引入力 프로그램 開發

(自動編輯 및 索引出力프로그램 포함)

②1977年 1月~12月分索引을 入力하여 磁氣테이프를 만들어 累加索引을 冊子로 發行한다.

③索引의 標目·記述등을 國際的인 標準에 따라 우리것으로 만든다.

④索引入力を 위한 Work Sheet를 試驗을 거쳐서 作成한다.

나) 推進方法: ①斯界의 專門家 15人을 諮問委員으로 委屬하여 索引의 標目, 記述方法 및 電算化長期計劃등 諸般 事項을 咨문받는다.

②KORSTIC의 電算室長을 爲始한 職員들에 의한 Working Group를 組織한다.

③記事索引의 入力は KORSTIC이 開發한 KIPS-2(漢字處理가 可能한 시스템)에 의해 處理한다.

④이 事業의 期間은 1978年 7月 1日 부터 1978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다) 效果: ①지금보다 索引의 記述方法이나 編輯體裁가 標準化 되고 利用에 便利하여 지며 또 他機關과의 互換性을 가지게 된다.

②索引의 刊行頻度(刊種)는 必要에 따라 月刊, 隔月刊 或은 半年刊, 年刊등과 累加索引까지 만들수 있다.

③主題別索引도 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속에 入力된 것은 必要에 따라 刊行할 수 있다,

이상의 效果에서 演譯해서 얼마든지 그 效果를 말할 수 있겠지만 다만 省略하고 다만 이자리에서 이러한 索引을 電算化 할 수 있겠끔 특히 漢文處理가 可能한 KIPS-2를 開發한 KORSTIC에 感謝드리지 않을 수 없다.

3. 電算化에 따른 諸問題

앞의 計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電算化하면서 斯界의 專門家들을 諮問委員으로 모시고 多方面에 걸쳐 充分히 檢討를 할 機會를 가지도록 推進計劃이 세워져 있다.

여기에서 1976年度 圖書館大會에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대해 論議되었던 여러가지 點¹⁾에 대한 것과 앞으로 電算化處理에 따른 問題등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上記 圖書館大會에서 提議되었던 事項들이 勿論 理

想的이고 妥當한 提議임을 이 索引의 編輯者도 平素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點들이다.

于先 첫째로 刊種別問題와 累加索引의 發刊은 切實했던 問題이다. 그러나 累加索引은 活版印刷物의 累綴版作成은 完全히 새로운 作業으로서 너무도 많은 人力과 經費때문에 不可能했던 일이다.

이제 電算處理케 되면 季刊을 月刊으로 하는 問題, 累加索引의 作成問題는 깨끗이 解決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刊種을 月刊으로 刊行할 때 그 分量面에서 너무 貧弱하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다.

한 號의 부피가 擘두뎀型態밖에 안될 것이며 每小主題下에 모이는 論文·記事篇數는 한·두편 혹은 전혀 없는 主題가 많이 생길 것이며 따라서 印刷費의 浪費도 생각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迅速한 奉仕」란 點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刊種을 月刊 乃至 隔月刊등으로 바꾸어야 함은 틀림없다.

두번째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收錄範圍 即 對象雜誌 및 對象記事의 擴大問題에 대해서는 若干의 意見을 가진다.

勿論 綜合索引誌인 以上 어느 雜誌와 記事는 錄收하고 어떤 것은 錄收치 않는 그런 選擇權限이 二次資料를 만드는 사람의 裁量에 屬하지 않는 일임도 자주 생각하여 보았고 또 그런 층고도 或間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正反對되는 층고도 더 많이 듣는다. 即 索引이란 定期刊行物에 掲載된 記事 가운데서 調查研究하는 사람이 參考하기 위해서 刊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參考가 될만한 記事만 索引해서 錄收할 것이지 調查·研究에 參考價値가 없는 雜文까지 錄收하여 오히려 必要하고 有用한 論文·記事까지 찾는 데 混雜을 빚을 必要가 없지 않는다는 意見이다. 그때마다 「參考價値」란 사람에게 따라 다르지 않느냐 하고 얼버무리 왔다.

그러나 모든 雜文記事까지 모두 索引하여 錄收하려면 人力과 發刊費도 問題가 된다.

確實히 「調査·研究에 參考價値」란 即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凡例에서 「學術的 價値」라고 表現된 選擇基準이 客觀性이 缺與된 基準인 것만은 確實하다. 그렇다고 그 以上の 어떤 客觀性있는 基準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實際에 있어서 雜誌 및 記事의 선택에도 苦衷은 있다. 다만 그 間의 經驗과 從前의 例에 따라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雜誌를 선택하고 記事를 선택 해 오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諮問委員들의 高見에 따라 再檢討

1) 朴文子: 우리나라 索引法에 대한 研究. 道暭월보 Vol. 17, No.8(1976.11) p.13.

하고자 하는 바다.

세번째로 「辭典體索引」의 編輯問題인데 이것은 1963年版 「國內刊行物記事索引」을 國會圖書館에서 처음 刊行할 때 筆者도 學術雜誌索引(圖協刊에 따라) 辭典體索引을 꼭 固守하려고 했으나 序言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윗사람의 意見이 이를 許諾치 않아서 決局 現在 形態의 分類式索引으로 刊行케 되었다.

그런데 圖書館人들은 大多數가 辭典體索引을 願하고 있는데 이 索引의 利用者속에는 圖書館人뿐만 아니고 學者나 調查研究者등 그 범위가 넓은데 이들 學者나 調查·研究하는 사람들은 「主題名」이란 것에 대해 理解가 없고 또 主題名으로 했을 때 '보라' 参照에 대해 구찮게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윗사람의 分類索引을 固執한 것도 바로 辭典體索引의 短點이라고 할 수 있는 類似主題의 記事가 그 音順에 따라 分散된다는 理由와 또 主題名에 대한 不理解 및 '보라' 参照가 구찮다는 것이 그 理由이다.

그래서 分類式의 長點이기도 한 隣接한 主題分野가 한곳에 모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서 使用되고 있는 이 特殊分類表(13個主類下의 小主題로 展開한 것)도 學門의 體系에 의해 知識을 分類展開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定期刊行物에 掲載되는 論文이나 記事의 題目에서 많이 나타나는 '用語'들을 大略의인 類別로 區分한 即 主題語 및 Key Word의 分類表라고 말할 수도 있다. 故로 이 分類表는 知識의 體系, 主題名 Key Word 등이 複合한 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表를 實際 使用하면서 어떤 記事의 分類가 애매 모호하고 또 分類를 하고서도 못맛당한 느낌이 드는 項目이 많이 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에 唯一한 李載喆編 「주제명표목표」로서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辭典體式 索引으로 만들기에 는 不足한 點이 많이 있다.

그리고 定期刊行物에 掲載되는 論文이나 記事란 大體로 그 內容이 여러 隣接學門分野의 小主題知識이 聯關되며 또한 그 題目도 書名에 比해서 여러개의 Key Word가 羅列되어 一般的으로 길다. 그래서 主題名作業이나 分類를 할 때 어려우며 많은 副出이 必要하여 지게 되기 때문에 手動作業일 때는 어려워진다.

索引을 電算化하게 되면 여러개의 副出이 容易하기 때문에 Key Word索引을 만드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고 便利한 索引이 될 것으로 믿는데 Key Word索引을 만드는 데도 「주제명표목표」와 같은 Thesaurus(同義語辭典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 큰 難題가 되고 있다.

특히 現在 季刊으로 刊行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2, 3年間の 累積本으로 만들 때 한 主題(小主題)下의 論文·記事篇數가 幾百篇以上이 모여지게 되겠는데 한 主題下에 50~60편의 記事篇數가 利用하는데 가장 알맞는 畵이라면 이를 반드시 더 細分하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한 主題下에 모인 論文·記事를 主題를 더 細分하기 위해서 再分類나 主題名作業을 할 때 다시 그 論文·記事의 原文를 찾아 보지 않고 可能한 方法은 題目에 나타난 Key Word에 의해 細分하는 路밖에 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問題가 現在 當面한 가장 難題가 되고 있다.

아무런 이 問題도 現在 우리의 事情에서 가장 合當한 方法을 여러 전문가의 諮問에 따라 知慧를 모아 對策을 講求하며 보려고 한다.

다음에 또 索引項目의 記述方法問題에 있어서도 I.S.O. Recommendation과 I.S.B.D.(M)의 遠用 및 國際的인 慣例, 機械可讀, 國內 他圖書館과의 互換性등을 考慮한 標準的인 索引이 되도록 改善코자 計劃하고 있다.

主題別索引의 刊行問題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컴퓨터」에 入力이 많이 되면 自然的으로 可能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4. 展 望

앞서 記述한 바와 같이 現代圖書館에서나 研究機關에 있어서 定期刊行物의 比重이 一般圖書보다도 情報源으로서 價値가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날 文獻情報量의 大幅的인 增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口를 發表 해 온 일이기 때문에 筆者가 다시 이 자리에서 부연할 必要는 없을 줄 믿는 바이다.

다만 한가지 그와같이 增加一路에 있는 各種 情報가 增加됨에 따라 그 情報의 價値가 줄어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아질수록 「컴퓨터」라는 文明의 利器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녔던 그 價値보다 더 많은 價値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日本의 增田米二氏의 情報論을 우리는 한번 讀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增田氏는 “情報의 活用法”이란 그의 著書속에서 「컴퓨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까지 말아서 하여 주기 때문에 「컴퓨터피아」(「컴퓨터」가 만들어 낸 「유포피아」라는 뜻)란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컴퓨터」가 가진 情報의 革命的인 意識를 다음과 같이 列擧하고 있다.

即① 「컴퓨터」가 人間을 代身해서 「오리지널」 情報까지 大量生産을 하게 된다는 것.

② 그 情報가 劃一的인 情報가 아니고 個別的인 要求에 마춘 注文品情報를 提供하게 된다는 것

③ 通信回線를 連結지우므로서 相互間 (「컴퓨터」와 利用者 사이) 情報를 서로 주고 받을수 있게 된다는 것.

④ 醫療나 教育과 같은 從來에 어려웠던 知的 生産性도 大幅 向上시킬수 있게 된 點등을 들고, 이러한 機能을 통해서 「컴퓨터」 革命은 經濟社會에 헤아릴 수 없는 影響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情報社會가 本格的으로 實現되면 20 世紀의 工業社會에서의 工場代身에 情報公社(Information Utility)라는 것이 생겨 날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主導産業이었던 製造業이나 서비스業 代身에 情報産業(增田氏는 具體的으로 Opportunity Industry : 可能性開發産業를 들고 있음)이 主導産業이 될 것이며 또 그때가 되면 情報의 價値는 더욱 더 重要視되고 現在의 物質價値에 代身하여 情報價値는 社會나 經濟發展에 더 큰 原動力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情報의 重要性에 대하여 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우리의 社會에서나 政府에서도 이제 큰 關心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情報를 求할 수 있는 源泉도 文情 即 圖書館이란 點도 깨닫고 큰 企業體에서는 모두 圖書館을 設置하며, 仔細한 進展事項은 모

르지만 最近에 와서 政府地에서도 相當한 움직임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바라건대 劃期的인 政府의 施策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無關心→豫算不足→施設빈약 및 質 낮은 奉仕” 그래서 더욱 無關心하여지는 그런 우리 圖書館界의 惡循環이 止揚되고 向上 發展의 길로 바꾸어지기를 苦待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이러한 面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번에 國會圖書館에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電算處理케 된 것은 여러가지 뜻을 지니며 새로운 時代의 새 産業에 첫발을 내어 디디는 것이라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줄 믿는다.

「獨島關係文獻目錄」發刊

光復以後 끈질기게 獨島領有權을 主張해 오고 있는 日本側의 論理가 얼마나 我田引水格인가를 알려 주는 길잡이로서 領土問題를 오랫동안 研究해 온 梁泰鎮(國土統一院圖書室)氏가 獨島問題를 둘러싼 韓日 兩國側에서의 發表한 文獻들을 모아 獨島關係 文獻目錄을 發刊하였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參考가 되었으면 한다.
연락처 : 박에서림 (265)3673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鍾路區 鍾路 街 40 電話 (72) 5131-33